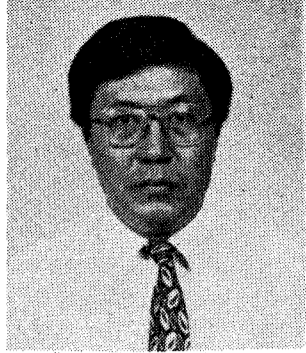


간염의 예방



전재윤
(연세의대 교수)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간염환자가 쓰던 면도기를 쓰던 도중 베어서 피가 나는 경우, 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주사하는 경우, 간염환자가 쓰던 주사기에 찔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주산기감염이란 모자감염, 모자간염 또는 수직감염이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를 체내에 갖고 있거나 급성간염을 앓고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분만중 또는 분만후에 산모로부터 바이러스

자에 따라서 발생률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B형 간염은 위생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낮고 밀집생활을 하는 계층에 많이 생긴다.

만성 바이러스 보유자가 중요한 감염원의 역할을 하는데 만성 바이러스 보유자는 면역학적 및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만성 바이러스 보유자의 빈도는 열대지방과 극동아시아에서 높고, 여자보다는 남자에 많고,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중독자, 백혈병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높다. B형 간염의 주된 감염원은 급성 및 만성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의 혈액이지만 그외에도 타액, 정액, 소변, 대변, 위액, 잠액, 담즙, 눈물, 관절액 등의 각종 체액 및 분비물과 배설물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감염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이고 다음으로 타액과 정액이며 그외의 체액, 분비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염중 가장 많은 것이 바이러스성 간염이고, 만성간질환의 70~80%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B형 간염의 전파경로중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산기 간염이므로 B형 간염의 주산기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만성 간질환 즉 만성간염,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절경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에 의해서 전파되므로 수혈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B형과 마찬가지로 혈액을 다루다가 그 혈액이 다른사람에게 들어가거나, 간염환자가 쓰던 면도기를 쓰던 도중 베어서 피가 나는 경우, 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 C형 간염의 혈청학적 진단 방법인 anti-HCV 검사방법이 1988년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혈후 간염의 90%가 C형 간염에 의해서 생겼지만 최근에는 C형 간염의 혈청학적

도 거의 전부가 접촉시에 대변-입 경로에 의해서 대변으로 배설된 바이러스를 섭취함으로써 사람에서 전파된다. E형 간염도 A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위생환경이 불결한 나라에 많아 아프리카나 인도 등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E형 간염으로 보고된 예들이 있다.

2.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는 충분한 안정과 영양 섭취로서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급성 간염을 앓고 난 후 B형, C형 및 D형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지만 만성간염의 치료로서 인터페론 등 항 바이러스제가 이용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일부환자에서만 있고,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경변증과 간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간질환의 70~80%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므로 바이러스성 간염 특히 B형의 예방이 중요

A·E형 - 오염된 물, 음식 B·C·D형 - 혈액이 주된 감염원인

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므로 전염병 중의 하나로서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이러스성 간염의 전파경로와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바이러스성 간염의 전파경로

바이러스성 간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법에는 경구적 감염, 비경구적 감염, 주산기 감염과 각종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다. 경구적 감염이란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설되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마시거나 먹었을때 감염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비경구적 감염이란 주로 혈액으로 전염되는 것을 말하며 수혈을 한다거나, 간염환자의 혈액을 다루다가 그 혈액이 다른

성 간염이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체액이나 분비물중에서 바이러스성 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은 타액, 위액, 정액, 관절액, 눈물 등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의 전염성이 강할 때에는 상기한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성 간염이 전염되는 수가 있다.

A형 간염은 가족내 접촉이나 기관내 접촉이 가장 문제되며 위생환경이 불결한 밀집생활을 하는 사회경제적으로 하류계층, 전쟁중의 군인들, 고아원이나 저능아수용소 같은 곳에서 생기기 쉽고, 도시보다는 농촌지방에 많고, 특히 저개발국이나 열대 지방에서 많이 생긴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아동에서 많이 생기고 늦은 가을과 이른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B형 간염은 지역적, 사회 경제적, 면역학적, 유전적인

과 배설물의 전파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의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는 혈액보다는 주산기감염이다.

주산기 감염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또는 급·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임신을 하여 분만을 하는 경우에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신생아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고 후에 성장하여 만성간염 및 간경변증과 간암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산모의 약 5%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분만직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90~95%는 면역이 생기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진단방법인 수혈전에 anti-HCV 검사를 시행하여 anti-HCV 양성인 혈액을 폐기하므로 수혈로 인한 C형 간염의 빈도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D형 간염도 B형 및 C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주로 혈액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D형 간염 바이러스는 단독으로는 증식을 하지 못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증식을 할 수 있다. 즉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만성 B형 간염환자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이나 간암환자에서만 D형 간염의 중복감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 흔하지만 D형 간염은 거의 없어서 별로 임상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E형 간염은 A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된다. E형 간염

시 되고 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염성 질환이므로 중요한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바이러스성 간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방법이다. 예방접종에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이 있는데 수동면역이란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고 난 환자의 혈청에서 고농도의 항체가 함유된 면역글로부린을 주사하여 단기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능동면역이란 간염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활성화시켜 병원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애고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하는 방법으로서 백신을 맞는 사람

<13면으로 계속>

한일약품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 뇌졸중(중풍)
-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를 받아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곤란에 의한 통증 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죄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향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겟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은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 (02)464-0861 교환 584

<12면에서 계속>

은 자신의 면역기능에 따라 백신을 맞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항체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다.

가) A형 간염

A형 간염의 주요한 감염원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므로 가족이나 같이 근무하는 사람중에 A형 간염환자가 있으면 가능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환자의 대변이나 소변등 배설물은 철저히 버리고 식기를 소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면역글로부린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AV)를 함유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면역글로부린제에는 예방효과가 충분한 항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또는 잠복기의 초기에 주사하면 임상적으로 뚜렷한 예방효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

생긴 경우이거나 또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예방주사가 특별히 필요없으며 전에 혈청검사를 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이미 혈액내에 있는 사람들도 예방접종이 필요없다. 열대지방이나 개발도상국을 여행하거나 정상적인 여행통로가 아닌 방법으로 여행해야하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수동면역으로 면역글로부린주사를 맞는것이 좋다. 3개월 이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0.02ml/kg, 3개월 이상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4개월 내지 6개월마다 0.06ml/kg를 주사한다.

면역글로부린은 안전하며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을 전염시키지 않는다. 최근에는 B형과 같이 A형 간염에 있어서도 능동면역으로 프로마린으로 비활성화시킨 백신이 개발되어 면역성이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으며 A형 간염 바

에서의 면도기나 치솔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반인들도 공공시설에서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면도기나 치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혈액을 다루거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B형 간염 환자를 다룰 때에 환자의 혈액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요한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의 전파경로는 주산기 감염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검사를 해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확인이 되거나 또는 임신중에 급성B형 간염을 앓거나 이미 만성 B형 간염환자로 지내던 중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분만하자마자 즉시 수동 및 능동에방접종을 해야만 한다.

B형 간염의 수동면역에는 표준 면역글로부린을 주사하

으며 임상적으로 뚜렷한 간염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감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한다. 능동면역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백신에는 건강 보유자의 혈장으로 만든 백신과 이스트에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백신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펩타이드로 된 백신 등이 있다.

1987년 이전에는 일세대 백신인 혈장으로 만든 백신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1987년 이후에는 이세대 백신인 이스트에서 만든 백신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펩타이드 백신도 이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백신은 면역성이 있어서 주사를 하면 체내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B형 간염예방에 매우 효과가 크며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주사후 1개월에는 약 30%, 2개월에서 6개월간에는 약 70%, 8개월에는 약 90~95%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족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에는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분만직후 수동면역으로 0.5ml의 HBIG를 근육주사하고 출생후 12시간이내에 능동면역으로 B형 간염백신을 3회(0, 1, 6개월)에 걸쳐 각각 10μg씩 근육주사하면 신생아의 90~95%에서 B형 간염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다) C형 간염

C형 간염의 주요한 감염원은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혈액이므로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환자는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처를 통해서나 이를 다루거나 해서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모든 혈액에서 C형 간염 여부를 알 수 있는 anti-HCV 검사를 시행하여 anti-HCV 양성인 혈액은 폐기함으로써 수혈후 C형 간염의 빈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C형 간염환자를 다루다가 환자가 쓰던 주사기에 찔리거나, 성적 접촉에 의해서, 또는 주산기 감염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양이 극히 적어서 수혈시 보다 C형 간염의 빈도가 훨씬 적고 이런 경우에 수동면역으로 면역글로부린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C형 간염에 대한 능동면역으로 C형 간염백신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라) D형 간염

D형 간염의 주된 감염원은 혈액이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 간염환자에서 D형 간염의 중복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면역예방주사는 아직까지 없으며 D형 간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B형 간염백신을 접종함으로써 D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 가능한 경피적 접촉이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방법이다.

마) E형 간염

E형 간염의 주요한 감염원은 A형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므로 가능한 환자와 잦은 접촉을 피한다.

<끝>

우리나라 경우 B형간염의 예방이 급선무

성인보다 출산직후 아기에게 예방접종이 절실히 요구

서는 면역글로부린이 A형간염의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병의 경과를 완하시켜 전염은 되었어도 임상적으로는 거의 모르고 지내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A형 간염이 발생하여 만성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가족중에 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중에 A형 간염을 앓는 환자가 있어 잦은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면역글로부린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용량은 0.02ml/kg으로서 체중이 60kg의 성인인 경우에는 1.2ml를 맞으면 된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주이내까지는 효과가 있으며 2주가 경과된 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효과가 없다.

또한 잦은 접촉이 아니라 보통의 접촉을 하는 경우 즉 같은 공장이나 학교 또는 같은 병원에 A형 간염환자가

백신주사후 1개월에는 약 30%, 2개월에서 6개월간에는 약 70%, 8개월에는 약 90~95%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족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면역글로부린 줄것
- 예방접종 할것
- 모두 주지 말것
- 뽀뽀하지 말것

바이러스 보유자

바이러스보유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아기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1회 주사로도 예방효과가 있으나 3회 주사를 권장하고 있다.

나) B형 간염

B형 간염의 주요한 감염원은 A형 간염과는 달리 혈액이므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급·만성 B형 간염환자들은 헌혈을 해서는 안되며 공중목욕탕 등 공공시설

는 방법과 B형 간염 면역글로부린(Hepatitis B Immune Globulin : HBIG)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준 면역글로부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체가 적당량이 들어 있으나 예방효과는 증명되지 않아 임상에서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B형 간염 면역글로부린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체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

한일약품

당뇨성 신경장애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남.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벤포티아민	69.15mg
염산 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500μ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비타메진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셀 22,000원

10만원대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 GX를 선보입니다.

고기능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전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

비타메진과 글루코메타GX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02)464-0861
 비타메진 (코)585, 글루코메타GX (코)에임스실
 지방: 대구영업소 752-5544, 대전영업소 253-9597, 9598, 광주영업소 223-6667-6668